생존과 해방의 새로운 통합점

학술특집

생태사회주의와 녹색정치

Ⅰ. 생태사회주의의 등장

1968년 민주화운동이후, 서구사회는 여성, 환경, 소수인종·민족문제 등 다양한 문제군들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중 대중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현존사회·지구위기로 형태화한 논의가 이른바 "환경위기"와 이를 중심으로 한 녹색적 논의로, 여기엔 다양한 유파들이 포함되어 있다.

논의의 초기상황에서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 비판적 측면(환경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가들의 새로운 이윤원 창출 또는 쁘띠부르조아지의 이데올로기)에서 생태주의를 바라보았고, 생태주의는 서구의 사민주의나 소련·동구의 현실사회주의를 생태위기의 공범으로 설정—사민주의는 복지프로그램을 경제성장에 의존시킴으로써 환경정책은 항상 개량화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 소련과 동구사회주의는 생산력제일주의에서도 생산성이 아니라 생산량의 고양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원남용·환경오염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한계—하여 서로간에 타협이나 공동전선 형성의 터전이 결여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를 경유하면서 생태주의와 사회주의는 현실적·이론적 한계상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상황은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은 서로에 대한 동질적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귀결된다. 사실 생태위기의 극복이 사회주의와 가질 수 있는 친화성은 ①생태위기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해주는 자연(대기, 물, 오존층, 기후)이 사유될 수 있는 재화로서의 성격보다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 ②이 위기를 야기한 경제성장은 사적이윤추구에 의해 추진되었으므로 이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문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놓여있다.

Ⅱ. 생태사회주의의 정의

생태사회주의는 생태위기적 정후군 속에서 생태주의적 이념인 생존과 사회주의의 이념인 해방을 사회변형을 위한 새로운 통합점으로 선택하면서 구성된 논의이다. 즉, 생태주의는 사회주의가 강조한 해방이란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초기적 보수성·엄세상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사회주의측에선 생존이란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논의들을 수정하고 7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문제군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로써 생태사회주의의 논의들에선 생태적 한계가 엄격성 및 보수성 ①①한계의 의미를 물질적 자원한계·자정능력한계 ②핸트로피적 한계 ③자연내적 질서파괴)이 생태학적 한계(①의 한계만 인정)로 축소되고, 생존에 대한 위협은 생명부양계의 관리능력유무로 한정되었으며, 이 관리는 사회주의의 이념인 해방(민들이 자기결정적 삶의 양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함)이란 가치로 견제됨으로써 보수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두 이념의 통합은 생태사회주의의 환경파괴에 대한 주된 원인논의에서 뚜렷해지는데, 생태사회주의는 자본주의사회와 현실사회주의사회에 공유된 생산력(과학·기술)과 관료주의에 관통해 있는 경제합리성에 원인을 위치지음으로써 인간·자연간 모순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간 모순의 동시적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경제합리성이란 원인제거를 위해 생태사회주의의 전략적 내용은 인간적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경제와 생태문화적 가치를 내재한 기술의 선택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민주주의적 자기관리체제를 지향하는 논의들로 채워지고, 현실 정치적으로 노동운동과 녹색운동간 동맹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태사회주의의 이론적 구조는 자신의 출발점으로 생태학을 취한다. 이로써 자연과 인간사회의 통합은 경제활동에 대한 생태학적 한계의 인정으로 나타나며, 정치전략적 논의에선 전선의 다면화와 운동단체간 상보성을 강조하고, 민초민주주의론에서 정당의 역할재규정·결정권의 시민으로의 구체적 하방·이를 위한 사회즈직패턴의 평면화와 지자체단위의 생태구회화로 나타난다.

Ⅲ. 생태사회주의적 경제논의

생태사회주의적 경제논의에서 생태학(생태적 물질순환기능)은 경제활동에 대한 한계로써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의 시각에 현재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본간 모순, 그리고 자연·인간간 모순(정확히 경제와 생태계간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1960년 후반이후 등장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과잉축적위기로만 해석되지 않고, 생태적 압박으로 인한 자연생산조건의 저생산위기가 중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위기는 경제위기이면서 생존위기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길과 생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동일하며, 특히 급진적 생태운동은 생태적 한계를 지닌 시장합리성의 부적합성을 드러내주기때문에, 현재 급진적 프로젝트의 한부분을 구성한다. 생태적 위기로부터 벗어난 경제는 현재의 경제위기(실업,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둔화)가 해소된 경제라야 한다.

따라서 이 두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태사회주의적 경제재구조조의 대상은 생산어널(내구성이 있고 쉽게 수선이 가능한 생산)으로부터 소비 그리고 소비된 자원의 재획득에 이르는 전과정을 포함하고, 재구조화의 전략은 시장의 효율성·유연성을 자본으로 대체할 국가의 재정능력(신화폐금융제도)·계획과 조합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가가 자신의 사회·생태적 경제계획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사적 자본축적에 기생하지 않는다는 것, 경제운동은 생태적 한계를 지닌 시장합리성의 부적합성을 드러내주기때문에, 현재 급진적 프로젝트의 한부분을 구성한다. 생태적 위기로부터 벗어난 경제는 현재의 경제위기(실업,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둔화)가 해소된 경제라야 한다.

따라서 이 두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태사회주의적 경제재구조조의 대상은 생산어널(내구성이 있고 쉽게 수선이 가능한 생산)으로부터 소비 그리고 소비된 자원의 재획득에 이르는 전과정을 포함하고, 재구조화의 전략은 시장의 효율성·유연성을 자본으로 대체할 국가의 재정능력(신화폐금융제도)·계획과 조합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가가 자신의 사회·생태적 경제계획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사적 자본축적에 기생하지 않는다는 것, 경제를 타율노동·거대기술이 전락된 공식경제영역과 자율노동·공환적기술이 접맥된 비공식경제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이념 및 품목과 관련하여서는 고도 중공업위주의 자본집약적 산업(대규모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에너지산업)을 주 대상으로 한 산업체제의 생태적 변형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는데,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적으로 통제된 국가는 생태적 합리화를 위한 기술의 선택과 생산부문을 조정하여야 한다. 전 사회적으로 강력한 '환경부문'을 발전시킴으로써 재래산업의 해체·개축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문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으며, 거대자본을 폐기할 수 있고, 탄위 노동력과 자본당 높은 이윤률을 보장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생태사회주의적 경제는 인간의 기본필요를 위한 생산, 경제영역에서의 공환기술·거대기술의 혼합적 사용, 그리고 이를 위한 민주주의적 자주관리체제의 회복이다.

Ⅳ. 생태사회주의적 정치전략

생태학이 제시하는 지구생태계적 기능실명은 인간과 자연간 매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서 노동 이외의 어떤 것을 지적하도록 해 준다. 그동안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노동하는 존재였고, 자연은 원료 저장소로서만 설정되었다. 그러나 생태학적 점근은 경제적 원료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최소한 인간실존을 위한 외피(생명부양계로서의 다기능적 측면—특히 쓰레기를 동화하는 자정능력)라는 자원을 분명 가지고 있음을 경고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실존의 외피로서의 자연과 이의 파괴는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노동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이 행위를 가한다는 일차적 의미로서의 노동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자연의 매개는 노동을 포괄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노동은 다만 사회의 다차적 공간(최소한 3차적 공간:도덕적·문화적 공간, 정치적 공간, 경제적 공간)에 인간이 대응하는 다차적 행위양식의 한 가지일 뿐이다.

따라서 생태사회주의는 국가(정치)와 사회(경제), 또는 토대와 상부구조로 분리시켜 그 전략적 초점을 경제 또는 토대에 맞추고 그 공격대상을 국가로 고정시킨 기존의 해방전략과 달리 행위하는 인간에 맞추어 새로운 구체성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문제제기의 주체 또한 전사회영역으로 확산되며, 민주주의적 자주관리와 인간필요를 위한 생산이란 목적을 위해 전략적 거점들은 국가나 영역, 경제영역에선 생산현장·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시민사회로 확장되어 전선을 다면화하며, 다차원적 변형이란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속에선 생산현장을 주된 투쟁의 영역으로 하는 노동운동만이 대안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운동(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생협운동, 농업협동조합운동, 주거공동체운동), 의화·정당에의 참여, 노조활동, 대안적 프로젝트에의 참여, 시민발의운동(주민운동), 여성운동 등이 생태사회주의적 목적기여성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의 유 의미성을 갖는다.

문 순 홍

(본교강사·정치학)

생산력과 생산관계간 모순의 해결시도

생태적 합리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중요

천연물의 구강암 치료효과

내가하는 공부

조 한 국

(치대교수·구강병리학)

내가 하는 공부는 병리학(pathollogy)이다. 그중에서도 '구강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다.

병리학은 질병에 관한 기초과학(basic science)으로서 의학의 뿌리와 줄기를 형성하는 것이며 의학적인식과 임상적실천을 통하여 얻어진 체계적 학문(systemic science)이다.

의학의 기본과제는 인간을 질병으로 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질병의 원인, 경과 및 저결(consequence)을 탐색하여 그 본질(nature)을 파악하고 나아가 공격단위인 '특수질병 내지는 질병단위(disease entity)'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임상의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료하려면 전문적인 치료기술도 필요하나 그보다도 병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한다.

병리학은 기초와 임상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역할을 하면서 임상진단에 참여하는 일종의 응용생물학(applied biology)으로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등의 기초의학지식의 바탕에서 이해 된다.

입안에서도 많은 질병이 원발성 및 속발성으로 발생되고 하며 각종 감염성질환이나 피부과성질환이 구강점막에 나타난다.

의학의 발달로 웬만한 병은 다 정체가 밝혀져 치료되고 있으나 까다로운 새로운 병이 생겨나고 있다. 암이나 당뇨병, 충치와 같은 현대병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현대치과에서 당면하고 있는 환경요인성 치주병이나 악안면동통뿐 악관절장애 환자가 늘고있다. 귀중한 치아를 잃은 자리에 치아이식술 '치과임프란트'가 점차 중요시 되고있어 이의정립을 위한 연구가 현대치과의 과제 이기도 하다.

나의 오랜 교수생활은 주로 '구강암'과 싸우고 있다. 암상에 있어 이들에 대한 원인을 추구해야 하며 그 경과 병변, 예후를 연구하여 질병의 본체(essence)를규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공부는 구강질환을 병리조직학적으로 진단(외과병리학)하고 올바른 진단을 위해 때로는 교수, 수련의와 임상병리토론(C.P.C)을 한다.

구강은 소화기관의 중요기관으로 치아 뿐만아니라 많은 기관과 조직이 관여한다. 입안의 병이 전신화 하기도 하고 전신병이 입안에 나타나기도 한다. 구강조직에서 각종 암이 발생되어 전신으로 전위되고 다른 부위의 암이 구강에 전위 하기도 하다.

까다로운 '현대병' 정복 노력 계속

◇…대학주보에 바란다.

경희대학교 구성원들의 삶과 학문과 투쟁의 하나됨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하고 있는 '경희의 얼굴' 대학주보 창간 38주년을 한국의 백만 청년학생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사이 저는 소위 '문민정권'이라는 깃발을 들고 전행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현상적 개혁정책에 대해 당달아 날뛰고 있는 제도언론의 일관성없는 보도태도를 접하면서 언론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90년 당시 한양대학교 한대신문사 편집국장을 역임한적이 있어 요즘도 대학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 읽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많이 읽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희대학교의 대학주보는 저희 학교와 비슷한 점이 많아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나친 중립성 독자와의 유대 저해

생활전반에 기본 둔 매체로 거듭날 때

서울과 서울 근교에 하나씩 학교가 있다는 점, 서울학교는 각기 동종련 소속이고 근교는 경기총련 소속이라는 점, 그럼에도 신문은 하나로 통합되어 나온다는 점등입니다.

제가 경희대학교와 대학주보사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기사의 경우 어떤 기사는 마치 학교측 논조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대학주보 일꾼들의 '학원 자주화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올바로 서있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학원 자주화 운동에 대한 주보사 일꾼들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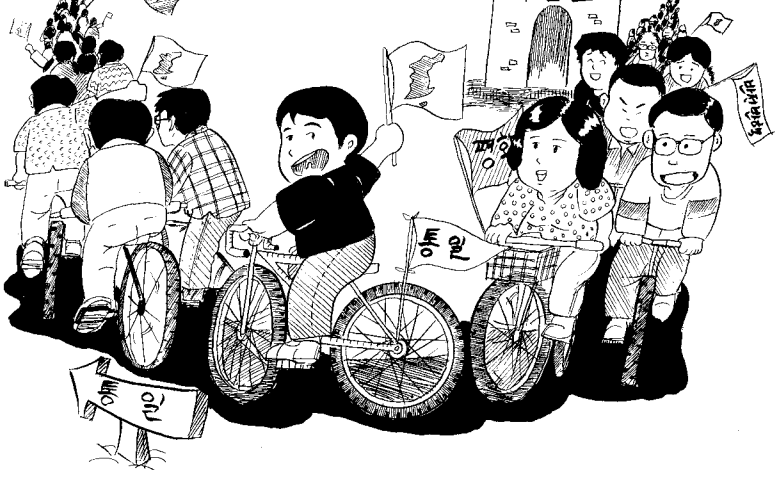
다음으로 모든 기획이 학우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전영역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자체의 기획력을 놓고 보았을때는 문제가 없으나 신문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기획 역시 학우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전영역에 배시기의 생생한 문제의식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적 학생회 건설에서 대학신문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야할 귀중한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대학주보는 몇몇 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희인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했을때 경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경희가족들은 자신을 돌보듯 대학주보를 돌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신문을 읽고 난후 신문에 대한 평을 몇자 적어 신문사에 전해준다던지 수업시간에 약간의 짬을 내어 교수님과 학생들이 그주의 대학주보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대학주보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획안을 한두개씩 내어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주보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작지만 2만여 경희인들의 대학주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관심이 모여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학원의 민주화라는 경희의 정신을 더더욱 빛내어 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주보사 운영 및 신문제작 실무전반을 책임지고 꾸려나가고 있는 주간교수님 및 주보사 일꾼들의 힘찬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김 재 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의장)



독립문 ~ 등용문

1천대의 자전거 쌩쌩~
1천명의 경희학우 신바람

이건 가상이 아닙니다.
오는 자주 경희제 행사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생활문화,
함께하는 공동체문화를 위해
경희 학우 모두가 노력합시다.

대 학 주 보 사